

---

#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디지털 경제 시대, 미래를 만드는 세계적(글로벌) 창업대국 -

---

2022. 12. 27.



중소벤처기업부

# 순 서

I .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II 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3
III 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.....	5
① 신산업·신시장 개척 첨병, 창업벤처 육성 .....	5
② 단단한 경제 허리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.....	7
③ 우리동네 혁신가,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.....	9
④ 위기극복·규제혁파 위한 정책 한 조(원팀) 가동	11
IV 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.....	13

# I. 추진성과와 평가

◆ **납품대금 연동제 도입,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였으며, 한-미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교류 등 성장기반 강화도 병행**

## 1 주요 정책 성과

- **(중소기업) 복합위기 중 납품대금 공정화 및 추가 만기연장 실시**
  - **14년\*의 숙원,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및 법제화**
    - \* '08.1월 금융위기 시 '납품대금 연동제' 법제화를 추진했으나, '조정협의제도'로 대체
    - 삼성, 엘지(LG),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388개사가 참여, 자율추진협약을 맺고 시범운영 개시 (9.14~)
    - 업계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법안 마련, '약자와의 동행' 1호 법안으로 여야 합의 통해 조기 법제화 (12.8)
  - **중소기업·소상공인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지원**
    - 362.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만료 (9.30)에 대비하여 추가연장 및 연착륙 방안 마련 (9.27)
    - 금융위·금감원과 함께 협의체 구성 → 업계요구 반영·조율을 통해 만기연장 최대 3년, 상환유예 최대 1년 추가 지원 결정
- **(창업벤처)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의 민간 중심, 국제적(글로벌) 전환 시도**
  - **'한-미 회담(서밋)' 등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세계(글로벌) 진출기반 강화**
    -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내 창업·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「케이(K)-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세계(글로벌) 진출 전략」 발표 (9.8)
      - \* 주요내용 : ①민간 활용 통한 맞춤형 지원, ②세계적(글로벌) 연계망(네트워크)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, ③해외 인재·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, ④케이(K)-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대표상표(브랜드) 확산
    - '한-미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회담(서밋)' 개최를 통해 해외

벤처투자사(VC), 세계적(글로벌) 대기업과 교류(네트워킹) 기회 확대 및 2.2억달러의 공동기금(펀드) 조성 합의 (9.21)

- \* 주요성과 : ①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38개사 아이알(IR)·투자유치(피칭) 진행, 벤처투자사(VC)·대기업 1:1 회의(미팅) 48건 성사, ②세계적(글로벌) 기업과 케이(K)-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공동 육성 약속, ③미 벤처투자사(VC) 3개사와 2.15억불 규모 기금(펀드) 조성
- 모태기금(펀드) 출자 국제적(글로벌)기금(펀드) 1.8조원 추가 조성 ('21. 4.9 → '22. 6.7조원)

### ○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해 제도 고도화

- 민간 모기금(펀드)\* 등 「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」 발표 (11.4)
  - \*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기금(펀드)을 조성하고, 벤처기금(펀드)에 출자하는 기금(펀드)
- 벤처모기금(펀드) 조성 근거,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과 함께 기금(펀드) 출자를 촉진하는 투자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\* 마련
  - \* 출자 시 세액(법인)·소득(개인) 공제, 운용사 부가세 면제, 회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

### □ (소상공인) 대대적 손실보전 및 소비축제로 코로나 극복 기반 마련

#### ○ 코로나19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

-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, 보다 강화\*된 7.9조원의 손실보상금 ('21.3Q~'22.2Q) 지급
  - \* 대상 확대(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), 보정률(90→100%) 및 하한액(50→100만원) 상향 등
- 특히, 손실보전금은 추경 확정 당일 지급 개시 (5.30) 및 4일만에 예산의 86% (325만개사, 19.8조원)를 신속 집행하여 만족도 제고
  - \* "새벽 3시 통장에 1,000만원 꽂혔다" 손실보전금 첫날에만 6조원 (머니투데이, '22.5.31)

#### ○ '7일간의 동행축제', '윈-윈터 축제(페스티벌)'로 소비 촉진

-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'7일간의 동행축제'를 개최 (9.1~7), 온·현실공간(오프라인) 합계 2,227억원의 매출 달성
  - \* 온라인 1,229억원 + 현실공간(오프라인) 998억원(상생소비복권 판매액 994억원 포함)
  - \*\* 동행축제 연계한 온누리상품권(할인율·한도 확대) 판매실적 2,913억원(9월) 미포함
- '한겨울의 동행축제, 윈-윈터 축제(페스티벌)' (12.16~25)로 소비 열기를 지속하고, 플랫폼 수익 기부, 나눔 바자회 등 따뜻한 나눔 실천

## 2 개선 필요사항

- '22년은 새정부 정책방향 설정 및 긴요한 사업(프로젝트)\* 완수에 집중
  - \* 예시 : 손실보전·보상, 납품대금 연동제, 동행축제, 한·미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회담(서밋) 등
- '23년에는 수립한 방향대로 부처 역량을 결집, 정책과제를 신속 이행해나가는 한편, 그간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고도화 필요
  - 아울러, 대·중소기업 뿐 아니라, 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, 벤처 플랫폼-소상공인 갈등 등 입체화하는 양극화 해소 노력 병행

## II.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 추진 여건

- **(성장모형(모델))** 과거 대기업이 주도해왔던 혁신과 경제성장, 일자리 창출은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
  - 10년 전 국제전자제품박람회(CES) 혁신상은 대기업의 무대였으나, '22년에는 국내 수상제품의 50%를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이 차지
    - \* 국제전자제품박람회(CES) 혁신상 제품수 : ('10) 삼성·엘지(LG)전자 38개,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없음 ('22) 삼성·엘지(LG)전자 67개,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87개 (총 173개)
  -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의 경우, '21년 고용이 2.5만명, 매출액이 37조원 증가하여, 각각 재계 1위·3위 수준을 담당
    - \* '20→'21년 종사자·매출액 : 25.3 → 27.8만명(+9.8%) / 154 → 188조원(+22.5%)
- **(디지털화)** 한편, 세계(글로벌) 경제는 실물경제보다 가상세계·자료(데이터)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 가속화
  - 지난 반세기 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은 정유·제조 등 실물 중심에서 자료(데이터)·플랫폼·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 기업\*으로 대체
    - \* ('80) 아이비엠(IBM) → ('00) 마이크로소프트(MS)·인텔 → ('21) 애플·마이크로소프트(MS)·아마존·구글·페이스북·텐센트·테슬라·티에스엠씨(TSMC)
  -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주도를 위한 노력 경주

< 주요 선진국 디지털·기저기술(딥테크) 정책 현황 >

	딥 테크 플랜(Deep Tech Plan)('19)		디지털 타겟 포(Digital Targets for) 2030('21)		2030 비전 포 인더스트리(Vision for Industry) 4.0('19)		아메리칸 인공지능 이니셔티브(American AI Initiative)('19)
	파괴적 혁신 분야 주도국 발전을 목표로 기저기술(딥테크) 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		① 디지털 전문가 양성, ② 디지털 기반(인프라) 구축, ③ 사업(비즈니스) 디지털 전환		제조 경쟁력 확보 위해,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투자 확대 및 디지털화 가속		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첨단 기술 분야(인공지능(AI), 자동화, 양자, 5G, 연결망(네트워크) 등) 주도권 확보

- ◆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중,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
  - 우리도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과 함께, 중소기업·소상공인도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균형있게 추진 필요
- ⇒ '23년 중기부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모형(모델)로서 ①세계(글로벌), ②디지털, ③함께도약을 3대 핵심전략 설정

## 2 업무 추진 방향

- ①세계(글로벌), ②디지털, ③함께도약 3대 성장전략 하에 중소·벤처기업·소상공인의 전면적인 세계(글로벌) 진출,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
  -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신(新)동반성장과, 복합위기 장기화 안전판 마련 및 현장체감 규제 해소도 병행
- ⇒ 현안별 유관부처와 지역조직·공공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“디지털 경제 시대, 미래를 만드는 세계적(글로벌) 창업대국” 본격 개막

**환경** 가상·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**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**

**비전** **디지털 경제 시대, 미래를 만드는 세계적(글로벌) 창업대국**

**대상** **창업벤처**      **중소기업**      **소상공인**

<b>성장전략</b>	<b>세계(글로벌)</b>	세계(글로벌) 지향 거대신생기업(유니콘) 창출	수출기업화 및 신흥시장 개척	세계(글로벌)가 찾는 골목상권 육성
	<b>디지털</b>	기저기술(딥테크) 초격차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육성	제조 디지털화 및 고부가 기술개발(R&D) 확대	소상공인 온라인 지능화(스마트화) 촉진
	<b>함께노약</b>	승자독식 않는 신(新)벤처로 재탄생	제대로 보상받는 공정 질서 확립	상생소비 및 전통시장 상생 확산

<b>현안 해결</b>	<b>위기극복</b>	<b>규제혁파</b>
	복합위기를 버틸 안전판 구축	규제뽀개기, 혁신특구 도입

**체계** 하나로 강력한 정책 한 조(원팀) 결성하여 임무(미션) 반드시 달성

### Ⅲ. 핵심 추진과제

#### ① 신산업·신시장 개척의 첨병, **창업벤처 집중 육성**

→ 디지털·초격차 창업 집중 및 중동·유럽 등 세계(글로벌) 진출 확대로 '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'로 발돋움

#### [1] **세계(글로벌)** :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세계(글로벌) 거대신생기업(유니콘) 창출

- **(국외(Out-Bound))**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세계(글로벌) 기금(펀드)\*를 미국·중동·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 (~'23, 누적 8조원)

\* 해외 벤처투자사(VC)가 운용하는 모태기금(펀드) 자기금(펀드)로,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거대신생기업(유니콘) 기업으로 성장

- 구글, 오라클 등 세계적(글로벌) 기업\*과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을 공동으로 육성하고, 케이스타트업센터(KSC), 벤처투자센터 등 해외 거점·연계망(네트워크)\*\* 확대

\* ('22) 300억원, 200개사 → ('23) 405억원, 270개사 지원

\*\* 케이(K)스타트업센터 7→8개소(베트남, 민간 기반(인프라) 활용), 벤처투자센터 3→4개소(유럽)

- **(국내(In-Bound))**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한 창업비자 발급 지원 (법무부 협업)\* 및 **국내(인바운드) 기술창업\*\* 강화**

\*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) :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·창업활동 종합 지원

\*\* 해외 우수 창업기업 대상 육성(액셀러레이팅), 정착보조, 학생인턴, 비엠(BM) 현지화 등 지원

- 세계적인(글로벌)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축제인 **컴업(COMEUP)**을 세계 5대 행사로 육성하고,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**국·내외(인·아웃바운드) 규제\*\* 해소** 추진

\*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의 눈높이에 맞는 부대행사 운영, 투자자 확대, 타 행사와의 연계 강화 등

\*\* 해외투자 유치시 애로 해소,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

#### [2] **디지털** : 디지털 경제 선점 위한 디지털·기저기술(딥테크)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육성

- **(디지털 창업)** 인공지능(AI)·자료(데이터) 등 디지털 전략기술 예비·초기 창업자 집중 양성\* 및 초격차 기업 위한 모태기금(펀드) '신인(루키)대전(리그)' 지원 신설\*\*

\* 혁신성 우수 신산업 분야 (예비)창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지원

\*\* 출자범위 : (현행) 창업초기 → (확대) 창업초기, 청년, 초격차 등 특화분야

-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인 '이어드림 사업(프로젝트)'을 창업으로 연계\*하고, 디지털 인재 공급을 위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\*\* 확대
  - \* (현행) 인공지능 교육 +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취업 연계 → (개선) 창업 연계 추가
  - \*\*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아카데미 확대 : ('22) 1,600명 → ('23) 2,400명

- **(초격차 사업(프로젝트))**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(글로벌)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육성, '초격차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1000+ 사업(프로젝트)' 본격 추진

\* 초격차 10대 분야 : ❶시스템반도체, ❷생명공학(바이오)·건강(헬스), ❸미래 이동수단(모빌리티), ❹친환경·에너지, ❺로봇, ❻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, ❼사이버보안·연계망(네트워크), ❽우주항공·해양, ❾차세대원전, ❿양자기술

- 5년간 초격차 유망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1,000개 이상을 선별, 기술사업화, 기술개발(R&D), 세계(글로벌)진출 등 지원수단 집중 투입 ('23~)

\* '23년 지원 : (기저기술(딥테크) 틱스 기술개발(R&D), 120개사) 최대 3년간 15억원, (신산업 분야 창업사업화, 150개사) 최대 3년간 6억원, (스케일업, 25개사) 상위 핵심 기업의 후속 확장(스케일업) 지원

- **(기반(인프라) 구축)** 연결망(네트워크)상에 가상 업무단지인 디지털 벤처지구(밸리)를 구현하여 벤처·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들의 집적·연결망(네트워크) 효과 제공

\* 가상사무실(오피스)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현장·전문가 의견 수렴 후 세부계획 마련

- **(자금공급 확대)** 디지털·생명공학(바이오) 등 신산업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확장(스케일업) 위한 초격차 기금(펀드) 신설, 디지털·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 확대\*

\* 디지털·첨단제조 등 혁신분야(최대 100억원) > 벤처기업(50억원) > 일반기업(30억원)

### [3] **함께도약** : 승자독식 모형(모델)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 재탄생

- **(플랫폼-소상공인 상생)** 3고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각종 부담\*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주도 상생협약 추진

\* 과도한 수수료·광고비 부담, 부정적·가짜 후기(리뷰)에 대한 대처 곤란 등

- **(나눔 사업(프로젝트))** 벤처기업, 플랫폼 기업, 벤처투자사(벤처캐피탈) 등이 타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(프로젝트) 본격 가동('23.1~)

- 기업,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, 기술, 재능 등을 다른 경제주체와 나누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제공

< 경제주체별 나눔 사업(프로젝트) 내용(안) >

주체	프로그램 내용	주체	프로그램 내용
벤처기업	■ 청년 일자리 창출, 후배기업 육성	중소기업	■ 동시·다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
거대신생기업 (유니콘)/ 플랫폼	■ 소상공인 협업 사업(비즈니스) 모형 (모델) 발굴	소상공인	■ 보유 재능을 취약계층과 공유
벤처투자사 (벤처캐피탈)	■ 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심리압박 치유 심리관리(케어)	대중견기업	■ 중소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(프로젝트)

▶ 선진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「(가칭) **창업 초기 기업(스타트업) 한국 (코리아) 종합대책**」 마련 (~'23.3) 및 “**제3의 벤처활성화(붐업) (Boom-up) 행사**” 연중 개최

② **단단한 우리경제의 허리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**

➔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·기술력 향상,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값받기 환경 조성으로 '수출·일자리 성장 버팀목' 역할 강화

(1) **세계(글로벌) :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주도 (드라이브)**

- **(수출 강소기업)**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'세계적인(글로벌) 강소기업'으로 통합\*, 최대 6억원의 바우처·기술개발(R&D) 및 금융\*\* 집중 지원 ('23, 1,000개사)
  - \* 유망(수출 ~100만달러) → 성장(100~500만) → 강소(500만 ↑) → 강소+(1,000만 ↑)
  - \*\* 최대 수출이용권(바우처) 1억원, 기술개발(R&D) 4억원, 지자체 1억원, 융자 100억원, 보증 70억원
- **(직접수출 전환)** 간접수출\*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온 무명의 수출용사 등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('23, 1,000개사)
  - \* 간접수출 :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·부자재 납품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하는 방식
- **(수출 다변화)** 신(新)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,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\* 집중 지원
  - \* 수출국 다변화 시 수출이용권(바우처) 우대, 정책금융 금리 인하 등 지원
- **(소프트웨어(SW)·온라인 수출)**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, 소프트웨어(SW)·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정비\* 및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\*\* 지원 강화
  - \* 소프트웨어(SW)·서비스 수출을 상품수출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정부 수출지원사업 참여 지원
  - \*\* 인천공항 전용 물류센터 착공('23.下), 전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세계적(글로벌)상점가(쇼핑몰)와의 협업을 통한 입점 및 특별판매전 개최, 비2비(B2B) 온라인수출거래터(플랫폼) 고도화 등

**[2] 디지털 :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촉진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(R&D) 확대**

- **(제조 디지털 전환)** ①기초단계 → 고도화 중심 전환, ②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반 강화\*, ③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형(모델) 확산\*\*

\* 공급기업·제조인력 육성, 제조자료(데이터) 활용, 표준·보안, 판로 등 간접지원 확대

\*\* 대중소 상생형사업 강화, 부처협업 기반 국가·지역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연계지원

- 자료(데이터)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'제조 자료(데이터) 거래시스템' 신설

< 제조 자료(데이터) 플랫폼 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 고도화 방안 >

<b>캠프(KAMP) 1.0</b>	⇒	<b>제조 서비스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(DTaaS) (KAMP 2.0)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표준 제조자료(데이터) + 인공지능 분석 도구 + 교육 프로그램 등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존 캠프(KAMP) 1.0 + 제조 자료(데이터) 거래 서비스 운영 + 공급기업 해결책(솔루션) 가게(스토어) 운영</li> </ul>

- **(기저기술(딥테크)·고위험 기술개발(R&D))** 시장 친화적인 '선(先)민간 투자 → 후(後)정부지원' 방식의 기술개발(R&D)\*을 첨단제조 등 기저 기술(딥테크) 중심으로 확대 ('23, 170개사)

\* (민간) 10억원 이상 선투자 → (정부) 확대(스케일업) 기술개발(R&D) 3년간 12억원 지원

- 미래성장 가능성, 혁신성이 높은 기술개발(R&D) 과제를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대규모 연계(매칭) 지원하는 고위험·고성과 사업 (프로젝트)\* 신설

\* (민간) 20억원 이상 선(先)투자 → (정부) 지분투자 최대 40억원 + 기술개발(R&D) 출연 30억원 내외

- 재무상황 등 결격요건 최소화 통해 혁신기업의 참여기회 확대

- **(지역·생산성 혁신)** 지역 주력산업 개편, 지역특화 제조혁신, 투자 여건 개선, 위기관리 등 「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」 마련 ('23.上)

\* 수도권 격차 확대, 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기업 혁신성장으로 해결

- 서비스 기술개발(R&D) 확대, 투자형 마케팅전문회사\* 도입, 인재 확보 지원 강화 등 「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」 마련 ('23.上)

\* 마케팅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매출 성과와 연동하거나 주식 지분으로 받는 제도

**[3] 함께도약 :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**

- **(납품대금 연동제)** 법 통과에 따른 대상기업 (12만개사)의 신속한 제도 확산을 위해, 하위규정 마련 및 내용·절차 집중 홍보 추진

-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, 계약체결 상담

(상담(컨설팅)) 지원 및 유관 협·단체와 전담조직(TF)를 구성하여 시행 애로 상시 논의

- 시행령·규칙, 지침 등을 적기 마련·시행 (~'23.6)하고, 연동제 주요 내용·절차를 지역설명회, 지침서(가이드북) 등 안내하여 혼란 최소화
- **(소프트웨어(SW) 제값받기)**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·중소 소프트웨어(SW)기업들이 제값을 받도록 부처협력 및 교육·홍보 실시
  - \*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, 상생협력법 등에 대한 교육·홍보
- **(신(新) 동반성장)**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\* 중심으로 대·중소기업 '상호 상생(윈윈)형' 신(新) 동반성장 모형(모델) 발굴·확산 (~'27, 100건\*\*)
  - \* '신(新)동반성장 선도기업' 및 '이달의 우수기업(상생볼)' 발굴, 상생협의회 운영 등
  - \*\* 연도별 발굴 계획 (건, 누적) : ('23) 20 → ('25) 60 → ('27) 100

### ③ 우리동네 생활혁신가, 기업가형 **소상공인** 육성

→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, 기업가형 소상공인, 세방화(글로벌) 동네상권을 키워 '문화에 혁신을 더한 따뜻한 골목상권' 형성

#### (1) **세방화(글로벌)** : 골목상권을 세계(글로벌)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상표(브랜드)로 육성

- \* 세방화(글로벌)(Glocal) : 세계(글로벌)(Global)와 지역(로컬)(Local)의 합성어,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추구
- **(골목벤처)** 단계별 경쟁·투자유치(피칭)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\* 대폭 확대 (29→100억원) 등 '골목벤처 육성 사업(프로젝트)' 본격 추진
  - \* ①지역(로컬)상표(브랜드), ②콘텐츠 확장, ③세계(글로벌) 확장 등 성장유형별로 구분
- 투자자 (상권기획자), 자금 (상권발전기금·골목기금(펀드)), 방식 (지분전환계약) 3요소를 아우르는 신(新)투자제도 기획·법안 마련
- 동네투자유치(펀딩), 선(先)민간투자-후(後)연계(매칭)융자 등 민간연계(매칭) 자금지원을 신설하고, 보유 혁신 생각(아이디어)의 지식재산(IP) 출원·보호·사업화 묶음(패키지) 지원

- **(상권브랜드)**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가치 창업가(로컬크리에이터)를 지속 육성 (120개사)하고, 읍면동·골목 단위 상권브랜드 추진
  -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·혁신가·주민 등이 참여,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선정·지원 (10개소)
  - 콘텐츠 (로컬크리에이터)와 도시재생·문화도시를 연계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상표(브랜드) 상권 육성 (4개소)
  - 지역(로컬)소비의 기반이 되는 동네단위 지역(로컬)유통망 시범구축 (2개소)

- **(혁신허브)** 관계부처·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 유희공간을 소상공인 혁신 중심지(허브)로 개편 (5곳), 직주락(職住樂)형 창업·성장 거점으로 활용



\* 공간구성 예시 : 공간나눔(코리빙)·공동작업(코워킹), 공유키친·서재, 카페, 지역(로컬)슈퍼 등

- **(기준 개편)** 소상공인 기준 개편 (매출액으로 일원화) 위해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·시행령 개정 추진 (~'23.下)
- **(종합계획)**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최초 수립 ('23.上)
  - \* 주요내용(안) : ①상권활성화 제도적 기반, ②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·협업, ③민간참여 확대, ④동지내몰림(젠트리피케이션) 방지 등 지속가능 상권 조성

## [2] **디지털** : 소상공인 지능형(스마트)·온라인 전환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

- **(스마트화)**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형(모델)인 상생형 지능형(스마트)상점(100곳),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\* (가칭 등대시장, 1~2곳) 시범 구축
  - \* 온라인쇼핑-시장내물류-소비자배송-전담인력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지원
  - 소상공인 업종별 및 지능화(스마트화) 수준별 적합한 기술을 도표화(매핑)·안내하는 지능형(스마트)기술 로드맵\* 수립 ('23.上)
    - \* 예시(외식업) : 테이블오더(또는 키오스크) + 서빙로봇 + 인공지능(AI)고객관리서비스 등
- **(온라인화)**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 교육, 상담(컨설팅), 플랫폼 입점, 전용 기반(인프라) 지원 (10만명)

- 대기업-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 지속 확대
  - \* 전통시장 무료 와이파이(WIFI)구역(존) 구축,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, 광고메시지 전송 지원 등

- **(자료(데이터) 혁신)** 준비된 창업과 자료(데이터) 기반 경영전략 수립을 돕는 '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 ('23.1~)

**[3] 함께도약 : 전국민 상생소비 지속 및 대기업-전통시장 상생 확대**

- **(동행축제)** 연 3회 (가정의달, 추석, 크리스마스) 온·현실공간(오프라인), 대·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이어가기 (릴레이) 개최

< 연간 이어가기(릴레이) 동행축제 추진 일정(안) >

구 분	시 점	주요 추진내용(안)
봄맞이 동행축제	'23.5월	▶ 가정의 달(5월) 맞이 다양한 소규모 행사 진행
황금녘 동행축제	'23.9월	▶ 추석명절 전, 민간기업·정부·지자체 등과 판촉행사 진행
한겨울 동행축제	'23.12월	▶ 온·현실공간(오프라인) 판촉 행사, 협·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

- **(상생 전통시장)** 대기업-전통시장 상생협력 프로그램 본격 확산
  - \* 사례 : 경동시장 스타벅스1960점 개점(스타벅스),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·교육장 지원(KT), 전통시장 상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및 수수료 면제(쿠팡) 등

**4 현장 위기극복·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**

→ 기관·지방청, 전(全)부처와 강력한 정책한 조(원팀)를 결성하고,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, 현장 핵심규제 혁파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

**[1] 위기극복 :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구축**

- **(금융부담 완화)**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 확대, 이차보전 및 요율 인하 등 지원 강화
  -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.2조원 공급하고, 금리 추가상승 시 기관 운용 여유분 활용 추가공급 검토

- 기보·지신보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.2%p 인하 ('23.상반기)
- 매출채권보험 확대 ('23, 21.2조원) 및 소기업 보험료 할인 (최대 90%), 매출채권팩토링 ('23, 775억원) 등을 통해 연쇄부도 방지
- **(채무조정·재기) 부실위기 기업\***에 대해 중기부의 위기기업 지원 (기업회생 상담(컨설팅) 등)과 금융기관 지원 (신속금융, 기업 개선 작업 (워크아웃))을 연계
  - \* 일시적 유동성 위기(B등급) 또는 구조적 문제 있지만 회생가능(C등급) 기업 대상
- **(벤처투자사(VC)투자 촉진) 모태기금(펀드) 자기금(펀드)에 유인책 (인센티브)\***를 적용하여 신속투자 촉진 및 벤처세컨더리 사모기금(펀드)\*\* 신규 조성 (2천억원 내외)
  - \*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 시 관리보수 추가 지급, 성과보수 지급 우대 등
  - \*\* 세컨더리 벤처기금(펀드) 또는 중소창업·벤처기업의 구주(舊株) 인수 목적의 사모기금(펀드)
- **(소상공인 재기) 소상공인 폐업 동향 점검(모니터링) 강화\*** 및 전문가 진단 반영 경영개선 서비스, 점포철거 등 재기지원 강화\*\*
  - \*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상 분기별 폐업 + 카드 가맹정보 활용 사실상 폐업 분석
  - \*\* 경영진단, 개선자금(최대 2천만원) / 점포철거비(3.3㎡당 8→13만원)
- **(지역위기 관리)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기지원센터\*** 및 위기 점검(모니터링)을 확대하고, 위기기업에 기술개발(R&D)·사업화, 사업전환 연계
  - \* ('22) 5개(강원·전남·대구·경북·부산) → ('23) 12개(세종·제주 제외 비수도권 전역)

## [2] **규제혁파** :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걸림돌 제거

- **(세계(글로벌) 혁신특구)** 세계적(글로벌)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, 국내·외 혁신 기업을 집적하여 신산업을 선도하는 신(新) 지역혁신 협력지구(클러스터) 도입
  - 획기적 규제 완화\*, 대규모 가늀터(테스트베드)\*\* 등 기반(인프라)을 제공하고, 혁신인재 육성 및 해외실증 기술개발(R&D), 확장(스케일업) 지원 등
    - \* 해외에 없는 규제는 실증특례 허용(사회합의 필요 시 해외진출 조건부 특례 부여)
    - \*\* (사례) 스웨덴은 세계 최장(700m) 자율주행 실내 가늀터(테스트베드) 구축·운영
- **(규제자유특구)**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 정비\*, 특례 자동연장\*\*, 특례 재심의 요청 등 절차 신설 (「지역특구법」 개정)
  - \* 소관부처의 개정계획 제출 의무화,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시 개정권고(특구위 의결)
  - \*\* '법령상 금지사항'은 임시허가 전환이 불가하여 법령 개정 전까지 특례 연장이 필요
- **(기존규제 해소)** 기업 현장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, 핵심규제는 장관이 직접 해결 추진
  - 기업 현장 접점을 활용\*하여 국내에만 존재하는 '나홀로 규제', 신(新)산업 '허들규제' 등 테마별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
    - \* 13개 지방청, 협단체, 중기(中企)옴부즈만 등(22, 2,460개 발굴 → 범정부 전담조직(TF) 최다(271개) 건의)
  - 바텀업(Bottom-up)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규제\*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'규제뽀개기' 추진
    - \* 예 :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 - 법적 지위(행안부 등), 주행기준(경찰청), 제품기준(산업부)
- **(신설규제 예보·유예)** '규제예보제'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\* 하고, 영세 창업기업에 신설·강화규제 한시 유예 (예: 3년) 검토
  - \* 입법예고, 의원발의 법안 등을 중소·소상공인에게 카드뉴스 형태로 전자우편 서비스(메일링)하여 현장 의견수렴 → 중기부가 업계를 대변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·강화 차단

## [3] **한 조(원팀)형성** : 기관·지방청, 전(全)부처와 하나로 강력한 정책 한 조(원팀) 결성

- **(부처간)** 중소기업의 당면 위험(리스크)을 해소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분야별 유관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
  - \* 협업사례 : (상생)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(공정위), (금융)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 (금융위, 금감원 등)

- **(부처내)** 본부-지방청-산하기관이 한 조(원팀)이 되어 일 잘하는 부처가 되도록 핵심정책을 설정·공유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

\* 장·차관 주재 지방청·산하기관 협의회 매월 개최 → 기관 핵심임무(미션) 설정, 점검·평가

## 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(청년정책)

< 추진방향 >

◇ 최근 위축세를 보이는 청년창업이 활력을 되찾고 혁신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창업도전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

\* 청년창업(1~9월, 개) : ('20) 365,914 → ('21) 382,805 (4.6%) → ('22) 376,679 (△1.6%)

\*\* 청년기술창업(1~9월, 개) : ('20) 67,364 → ('21) 66,987 (△0.6%) → ('22) 65,849 (△1.7%)

- **(창업 도전)** 엠지(MZ)세대 맞춤형사업 신설 및 공공기술 활용 창업 지원
  - 생애 처음 기술창업 (6대 분야 중점)\*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, 사업화자금, 지도자(멘토)강화 및 조단합(팀빌딩) 등 지원
    - \*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서비스플랫폼, 실감형콘텐츠(VR·AR)
  -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, 비엠(BM) 고도화, 기술이전료 등 지원
- **(도전 확산)** 대학의 창업거점 역할 강화 및 민간역량 활용 확대
  -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'창업중심대학\*'으로 지정하여,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중심지(허브) 역할 수행
    - \* ('22) 6개 대학 (한양, 강원, 호서, 부산, 대구, 전북) → ('23) 9개 대학 (+3개)
  -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운영권(선발, 교육 등) 갖고 기업육성·투자유치 등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
    - \* ('22) 1개소 시범도입 (대전) → ('23) 3개소 이상
- **(성장 촉진)** 우수 기술·생각(아이디어)을 보유한 청년창업자가 확대(스케일업) 할 수 있도록 기금(펀드) 조성, 보증 우대 등 금융지원 강화
  - '23년 모태기금(펀드) 출자 청년창업기금(펀드)을 추가 조성\*하여 청년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
    - \* ('22) 1,100억원 조성 → ('23) 550억원 추가 조성 (정부안)
  - 청년창업기업 신규보증을 연 5천억원으로 확대, 5년간 ('23 ~ '27) 총 2.5조원 공급하고, '우수청년스타'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\*
    - \* (추천기관 확대) 정부 창업지원 기관 → 민간 및 지자체 창업지원 유관기관 (우대지원)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%, 고정 보증료를 0.3% 적용